



오카야마 고라쿠엔

특별 명승



사계절 행사

겨울

1월 1일~3일 초춘제
2월 상순 잔디 태우기
2월 하순 소나무 벗질 태우기

봄

3월 2일 개원기념일
4월 첫째 일요일 고신코
4월 하순 요사이 다과회
4월 하순~5월 봄의 환상정원
5월 셋째 일요일 찻잎 따기 축제
5월 하순 초여름의 엔요데이 특별 공개

여름

6월 둘째 일요일 모내기 축제
7월 첫째 일요일 간렌세츠
8월 여름의 환상정원

가을

음력 8월 15일 명월 감상회
10월 하순 소나무 벗질 싸기
10월 하순 가을의 엔요데이 특별 공개
10월 하순~11월 중순 국화 전시회
11월 3일 고라쿠노
11월 하순 가을의 환상정원



■ **개원 시간** 3월 20일~9월 30일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10월 1일~3월 19일 오전 8시~오후 5시
●입장은 폐장 시간의 15분전까지입니다.

■ **입장료** 어른(15세 이상 65세 미만 중학생은 제외) 410엔
어린이(초등·중학생) 140엔
고령자(65세 이상) 140엔
단체(20인 이상) 2할 할인

■ **공통 입장료** 고라쿠엔·현립박물관 어른 520엔
고라쿠엔·오카야마성 어른 580엔
고라쿠엔·오카야마성·하야시바라 미술관 어른 980엔
●휴관일, 특별전 개최시(준비기간 포함)에는 판매를 중지합니다.

■ **연간 패스포트** 어른 2,080엔 어린이 830엔
고령자(65세 이상) 830엔

■ **주차 요금** 승용차 1시간 100엔
버스 1일 1회 620엔

●오카야마 IC에서 자동차로 20분(약 8km)
●JR 오카야마역에서 도보 25분(약 1.8km)
시내전차 히가시야마(東山)행으로 4분「시르시타(城下)」하차후, 도보 10분
오카덴버스「후지와라 단지」행으로 15분, 「고라쿠엔 마에」에서 하차, 바로 근처

오카야마 고라쿠엔
우편번호 703-8257 오카야마시 기타구 고라쿠엔 1-5 (岡山市北区後樂園1-5)
Tel 086-272-1148 Fax 086-272-1147
https://okayama-korakuen.jp/



Okayama Korakuen Free Wi-Fi 오카야마고라쿠엔 Japan. Free Wi-Fi

봄

1 엔오테이(정자)

영주가 고라쿠엔 정원을 찾을 때 기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와노이케(澤之池) 연못. 유이신산(唯心山) 산 그리고 정원 밖으로 보이는 미사오야마(操山) 산 등 정원 내외의 경치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고라쿠엔 정원의 중심적 건물입니다.

2 노 무대(전통극 무대)

노(能)에 심취하였던 이케다 쓰나마사(池田綱政)는 춤 솜씨도 뛰어나 노 무대의상의 명품도 다수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영지내의 일반인들에게도 배관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전쟁 이후 복원된 것입니다.

3 니시키가오카(연못)

조원 당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숲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삼나무 숲으로 바뀌어 시가지에서는 보기드물게 산새, 들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곡수

옛날에는 여사히기와(堀川) 강의 약 4km 떨어진 상류에서 건너편 강변까지 곡물 풍여들이 고라쿠엔 정원의 곡수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복원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연못과 작은 폭포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아름다운 물의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0 승마장·궁술장

고라쿠엔 정원은 영주의 오락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무 겸비를 위한 무예의 수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신의 무예 숙련도를 관전하는 행사도 개최되어 영주는 간키테이(觀騎亭)나 간샤테이(觀射亭)에서 관전하였습니다.

여름



고라쿠엔 사와노이케 연못

4 가요노이케(연못)

동쪽으로는 가요(花葉)의 작은 폭포가 있으며 남서쪽 물가에는 17세기말 큰 바위를 90개 정도로 갈라 운반한 뒤 다시 원래의 형상대로 짜맞춘 「대입석(大立石)」이 있습니다. 6~8월에는 다이묘(大名) 연꽃이 만발합니다.

5 지조도(불당)

지조도 불당 옆에는 정원 조영 당시에 심어진 수목으로 추정되는 푸조나무가 남아있습니다.

6 오후나이라(유적터)

영주가 성에서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사용하였던 선착장 유적터. 오나리고몬(御成御門) 문으로 이어지는 선착의 계단이 발견되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18 사와노이케(연못)

정원내에서 가장 큰 연못으로 연못 안에는 섬의 다실이 있는 중지도, 뉘시터가 있는 미노시마(御野島) 섬, 흰모래톱과 푸른 소나무가 아름다운 자리지마(砂利島) 섬이 있습니다.

19 두루미 사육장

에도 시대부터 두루미가 사육되었으나 종전 후 절멸하였습니다. 오카야마의 구 제(舊制) 제6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중국과학원 곽말약(郭沫若) 원장이 두루미 2마리를 기증하였습니다. 그 후 구시로(釧路)시의 도움으로 많은 두루미가 번식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원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은 오카야마성(岡山城) 뒤편에 만든 정원이란 의미에서 고엔(後園)이라고 불리웠으나, 「근심을 먼저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先憂後樂)」는 정신 아래 조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1871년 고라쿠엔(後樂園)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카야마 고라쿠엔 정원은 미술경 그린가이드 제권에서 별 3개를 취득

일본 3대 정원의 하나, 오카야마 고라쿠엔 정원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 유산

오카야마(岡山) 고라쿠엔(後樂園)은 오카야마번(岡山藩)의 영주 이케다 쓰나마사(池田綱政)가 가신인 쓰다 나가타다(津田永忠)에게 명하여 1687년에 착공하여 1700년에 일단 완성된 정원입니다. 이후에도 영주들의 취향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에도 시대의 모습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원에 대해서는 에도 시대의 옛 그림이나 이케다(池田) 가문의 기록, 문서 등에 다수 남아 있어 그 역사적인 변천도 살펴볼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정원이면서 그 매력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이묘(大名) 영주(영주) 정원의 대표인 고라쿠엔 정원의 일찍이 영주가 정양하는 장소 그리고 빈객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영주 한 때를 정하여 영주 내의 일반인들에게도 관람이 허락되었습니다.

1884년 오카야마현에 양도되어 정식으로 일반 공개되었습니다. 1934년의 수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전화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에도 시대의 옛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복구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195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특별 명승」이 지정되었으며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적 문화유산이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와노이케 연못의 경관



사와노이케 연못



류텐 정자와 꽃창포밭

3백년의 역사가 숨쉬는 고라쿠엔(정원)

오카야마(岡山)가 사랑하는 고라쿠엔 정원은 에도(江戸) 시대를 대표하는 다이묘(大名) 정원의 하나입니다. 엔요테이(延養亭) 정자와 노(能) 전통극 무대를 중심으로 한 정자들과 정원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실과 사당에는 번(藩)의 역대 영주들의 아련한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 연못, 인공 조산 그리고 다실 등은 정원의 산책로, 수로와 잘 조화를 이루어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회유식(回遊式) 정원입니다.

여름

- 9 류텐(정자)**
정자 한 가운데를 물길이 지나며 내부는 아름다운 돌들이 배치되어 있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건축물입니다. 영주가 정원을 둘러볼 때 잠시 쉬는 휴게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간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10 아쓰하시(다리)**
연못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 사이로 제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같은 배치는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속의 「아즈마구다리(東下)」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 11 가코노이케(연못)**
가코노이케 연못 주변은 조원 당시 야생 벚꽃과 갖가지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경관이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줄기와 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읊은 와카(和歌)도 남아 있습니다. 정원내를 구비구비 돌아온 물줄기는 이 연못에서 아사히가와(旭川) 강으로 되돌아갑니다.



- 12 차소도(다실)**
막부시대 말기 자신의 별장에 있었던 리큐도(利休堂) 다실을 1887년경에 옮겨온 것입니다. 전쟁 이후 재건되면서 오카야마 출신으로 일본에 최초로 「차」를 전래한 에이사이 선사(榮西禪師)와 함께 모시고 있어 차소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을



유이신잔산의 단풍

- 7 렌치켄(정자)**
정원내에 산재해 있는 정자 가운데서 이케다 쓰나마사가 가장 즐겨 이용하였던 곳입니다. 렌치켄 정자에서 바라보는 물가 경치는 경탄을 자아냅니다.
- 8 유이신잔(산)**
이케다 쓰나마사(池田綱政)의 아들 쓰구마사가 조영을 명한 약 6m의 석가산으로 원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철쭉이 필 무렵은 절경을 이룹니다.
- 13 매화림**
이른봄 어느 꽃보다 먼저 흥백의 출꽃, 겹꽃 등 약 100그루의 매화가 만발하며 방수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 14 치시오노모리(숲)**
100그루 가까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봄과 비단을 펼친듯한 가을 단풍은 절경입니다. 정원내 명승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잔디가 곱게 펼쳐진 넓은 정원
일본 어디에서나 널리 지향하고 있는 야생 잔디를 넓게 심어, 탁트인 전원이 자랑인 정원입니다. 정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잔디는 사와노이케(澤園池) 연못의 서쪽에 있는 엔요테이(延養亭) 정자에서 그저 버려질 정도의 범위였으며 그 너머지 대부분은 밭이었습니다. 정원 전체에 잔디밭이 조성된 것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부터입니다.

현황	전체 면적 144,000㎡	유이신잔(산) 높이 약 6m
	잔디 면적 19,600㎡	곡수(전장) 약 640m

- 15 정전(과 정전의 연못)**
정전은 일찌기 원내에 펼쳐져 있던 논밭의 자취로 중국 주나라시대의 전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막부 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 회생하여 꽃을 피우고 있는 오가연꽃은 6-7월경이 절정입니다.

- 16 차밭**
둥그스름하게 손질하여 보기 아름다운 차나무가 줄지어있는 차밭. 차의 종류는 약간 짧은 맛이 강한 옛품종입니다.
- 17 지겐도(불당)**
지겐도 불당은 이케다 쓰나마사(池田綱政)가 번내의 평안과 이케다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한 관음당입니다.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에도 시대에는 역대 영주로부터 두터운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P 주차장	화장실	공중전화
택시 타는 곳	레스토랑	코인 로커
버스 정류장	매표	다목적 화장실
두루미 집		